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젊은' 교구 공동체의 해

31. 예수님께서서는 젊은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에 멀리서 또는 밖에서가 아니라, 몸소 젊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는 당신 자신의 젊음에서 출발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여 주는 젊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셨고, 그분에게서 젊은 마음의 전형적인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이루는 친교를 소중히 여기셨으며,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그들에게 충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약한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죄인들과 배척받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젊은이와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AI 생성 이미지(ChatGPT 활용)



- 제 1 독 시 탈출 19,2-6ㄱ
- 회 답 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제 2 독 시 로마 5,6-11
- 복 음 환 호 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 음 마태 9,36-10,8
- 영 성 제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완전함을 지향하는 불완전한 이들



나정흠
미카엘 신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어렸을 적, 학습지 구독선물로 롤러스케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습지보다는 롤러스케이트에 관심이 더 있었던 터라 롤러스케이트를 받자마자 저와 동생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이 시멘트 길이라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제격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렇게 평평해 보이던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말입니다. 초짜 스케이더가 자신의 실력은 알지도 못하고 길 탕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평평한 길을 찾아가다 보니 집에서 당시 걸음으로 30분이 걸리던 성당까지 다다랐습니다. 성당에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찾아낸 곳은 성당 안이었습니다. 매끈한 장판 바닥에 롤러스케이트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미끄러져 갔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소리가 사제관까지 들렸을까? 신부님께서 성당 안으로 들어오셨고 신부님의 꾸짖음과 함께 저희는 집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장난꾸러기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기 전에도 사제가 되고 나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교회공동체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배경의 열두 사도를 불러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세 명의 제자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세리들(친로마적), 혁명당원들(반로마적), 가난하고 부유한 어부들(시몬과 안드레아는 가난한 어부, 야곱과 요한은 일종의 어업회사 소속)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정치·사회적인 부분에서 불목과 불안함이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불완전함을 통하여 완전함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이들이 모여 완전함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의 공동체도, 성인 성녀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런 사람도 성당에 다닙니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유다도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과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여러 성장 과정의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단체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 나라의 완전함을 지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중에 열둘을 뽑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 또한 불안 요소를 간직한 이들이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납니다. 독수리 날개에 태우신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깃털을 부여잡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로 뽑히거나,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월등한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겸손함으로 교회에 간직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익히고 실천합시다.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서 외치는 또 다른 사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열 두 사도의 파견’ 제임스 티소트 작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마태 10,1).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교회분열 11

테셀자: 일곱 남매를 나은 부인을 버리고 딸보다도 어린 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인데 개혁자들이 허락해 준다고요?

천주교인: 필립의 후원이 절대로 필요했던 그들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비밀조건으로 허락해 줍니다(1539년). 그러나 필립은 드러내놓고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립니다(1540년). (참고: 교부들의 신앙, 510쪽)

테셀자: 루터와 멜란히톤이 조강지처와의 이혼을 허락할 권한이 있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이혼을 허락하는 건가요? 그들이 하느님인가요?

천주교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주님의 엄명을 무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숙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함인데(마태 19,9), 성경뿐이라며 개혁을 내세운 이들이 성경에 반하여 이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테셀자: 교회 당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나요?

천주교인: 영국의 헨리8세 경우가 똑같은 경우였지요. 교황이 헨리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영국국교인 성공회가 갈라진 사실을 상기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교회 기율을 개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교파에도 기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율에 있어서 본인들이 개혁 대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테셀자: 말씀을 들어보니 개혁자들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한 것인지가 의문이 드네요?

천주교인: 만일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를 개혁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하겠어요? 개혁할 것과 개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테셀자: 자기 종교의 근본인 진리(교리) 내용은 개혁할 것이 아니지요. 그 내용을 바꾼다면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천주교인: 맞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실천해 왔느냐가 진리의 원본이지요. 제자들이 알아듣고 실행해 온 것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또 다음의 후계자들에게 변형 없이 물려주어 세대를 이어 내려온 것이 참된 그리스도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1500여 년이 지난 뒤에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건 아니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행한 제자들은 헛된 교리를 믿고 행한 것입니까?

테셀자: 그런 것이 있나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지요.

천주교인: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는 7성사 중에서 세례만 분명히 인정할 뿐이지요. 다른 성사들을 인정하지 않지요? 대사大赦도 인정하지 않지요. 믿음 뿐, 성경뿐, 은총뿐이라는 가설을 세우지요. 직무사제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뿐이니 수도생활, 동정생활의 가치, 성모님 성인성녀 공경, 성상 공경, 금육재과 단식재 실천, 등등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런 신앙과 실천들로 오류에 빠져있도록 1500년 동안이나 하느님이 보고만 있었나요? 그러다가 1500년 후에 루터를 선택해서 고쳤나요? 정교회와 성공회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신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성당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재영 루도비코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주택에 살고 있는 내 집에는 잡동사니가 많다. 한 건물에 네 집 살림이 들어온 데다가 내 자신이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성으로 곳곳에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쌓여 있다. 네 집 살림이라는 것은 부모님, 처가, 큰아들 그리고 내가 살던 아파트 살림을 말한다. 부모님이 살던 집에 있던 것들이나 처가, 큰아들 집에 있던 것들은 대동소이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더욱이 치매가 심한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 살림에는 휠체어, 보조 보행기까지 놓여있다.

얼마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온 물건을 사러 시내 한 아파트에 들렀다. 벽에 고상(십자가)이 걸려 있기에 반가웠다. 반가운 맘은 방을 훑어보면서 금방 내려놓아야 했다. 텅 비어 쓸렁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왜 파느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인데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열심한 신자였던 것 같았다. 방마다 십자가가 모셔져 있고, 응접실 탁자에는 십자가, 성모상, 초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들이었다.

그런 모습은 많은 생각을 끌고 왔다. 시골 주택에 사시던 내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시내 아파트 하나를 구해 사셨다. 주변에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혼자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말년에는 요양병원에 계셨다. 집을 짓고 귀향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려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새집에서 한 해라도 내가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사한 후 두 달도 되기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어머니 사시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어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을 버리고 버렸다. 어머니 역시 십자가와 성모상, 묵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들은 내 집으로 옮겼다.

요즘 종종 주변 사람들한테서 스스로 물건을 정리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자식에게 짐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다. 항아리, 도자기, 그림, 허물며 지난 계절 입던 옷도 내놓고, 안 팔리면 버린다고 한다. 내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찾으러 갔던 집 자제에게 물었다. 십자가상과 성모상, 촛대 및 장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그것을 묻기 전에 성당에 나가냐고 물었다. 아들은 안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버리겠다고 했다. 축복받은 성물은 팔고 사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나였다. 신자로서 성물을 쓰레기통에 버릴까 봐 은근히 걱정되었다. 결국 성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챙겨왔다. 물론 만 원짜리 몇 장 주었지만 말이다. 타인이 쓰던 성물을 갖고 오면서 성물의 주인을 위해 화살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후일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만지고 바라보며 즐기던 온갖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하느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인정해야 했다. 그 집에 있던 성물 중 남긴 단 하나의 성물은 그분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벽에 걸어 두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낡은 십자가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품에 십자가를 넣어주겠다고 했다. "성당에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마디 보태며 아파트를 쓸쓸하게 빠져나온 나였다. 그 말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AI 생성 이미지 (ChatGPT 활용)

청주교구 제4대 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 송별미사

- 일시 _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시 참사회 소집 안내

6월 24일 전임 김종강 대주교님께서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취임 하심에 따라 본 교구는 교회법 제418조 1항에 의거하여 교구장좌가 공석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법 제421조 1항에 의거하여 교구장 직무 대행 선출을 위한 참사회를 6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소집합니다.

(교구 사무처 공문 2026-030호 참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교구대회 '홈스테이(민박)' 가정 모집

청주교구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앞두고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청주교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홈스테이(민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우리 가정으로 맞이하는 일은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서로의 신앙과 문화를 나누며 가톨릭교회의 보편성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일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홈스테이(민박) 기본 안내

기간 _ 2027년 7월 29일(목)~8월 2일(월) / 4박 5일

인원 _ 가정당 2명 이상

일정 _ 순례자들은 아침식사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 귀가하여 가정과 시간을 함께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어 _ 외국어가 서투러도 괜찮습니다. 바디랭귀지와 번역기를 활용하여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더 큰 감동이 피어납니다.

생활 _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성당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숙소 · 식사 비용 _ 호스트 가정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 신청 _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본당 사무실에 제출

■ 문의 _ 각 본당 사무실, 본당 코디네이터, 조직위원회 220-1700



교구청

2분기 신규 사무장 교육

일시 _ 6.16.화.10:00
 장소 _ 교구청
 문의 _ 210-1760 전산홍보실

빛길(청년 기도모임)

일시 _ 6.19.금.19: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50 성소국

2026년 제3차 교구 위령회 기본교육

일시 _ 6.20.토-21.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대상 _ 각 본당별 4-8명(총 60명 정원)
 문의 _ 210-1731 선교사목국

모범교리교사 해외성지순례

일시 _ 6.20.토-28.주일
 장소 _ 로마

성소자 모임(예비신학교/여성수도성소자)

일시 _ 6.21.주일.10:00(고2-3/대학생/일반)
 6.21.주일.13:30(중1-고1예신/여성)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50 성소국

교구 법원 공사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 22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_ 김걸
 문의 _ 210-1705 ※주말, 공휴일 휴무

2026 어머니학교 '행복한 엄마, 행복한 자녀'

일시 _ 7.4.토.09:00-18:00
 장소 _ 교구청
 대상 _ 만 55세 미만 어머니 선착순 40명
 회비 _ 3만원

주제 _ 1) 자녀와 소통하기(경청반영실습)
 사례를 통한 방법 찾기 및 질의응답
 2) 어머니의 영성
 강사 _ 1) 박대선 시메온(서툰어른심리상담센터장)
 2) 김병찬 베드로 신부(교구 가정사목국장)
 접수 _ 6.24.수까지 210-1733 가정사목국

제75차 청주선택주말

일시 _ 7.10.금.18:30-12.주일.17:00
 장소 _ 교구 연수원
 대상 _ 20세 이상 미혼 청년(선착순)
 접수 _ 6.14.주일까지 www.cjyc.or.kr
 문의 _ 220-1703 청소년사목국
 010-4117-5659 대표봉사자

미사·피정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의 날

일시 _ 6.15.월.09:00-12:00
 장소 _ 서운동 성당 베다니쉼터 카페 앞
 대상 _ 희망하는 모든 신자
 주관 _ 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_ 6.15.월.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생명수호미사

일시 _ 6.15.월.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주례 _ 장건 알베르토 신부

성소를 위한 미사(청주)

일시 _ 6.15.월.19:3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청년성서모임 한처음 월미사

일시 _ 6.16.화.2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성소를 위한 미사

일시 _ 6.18.목.19:30
 장소 _ 지현동 성당

제213차 청주 ME주말

일시 _ 6.19.금-21.주일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일시 _ 6.25.목.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주례 _ 교구장 직무대행
 주최 _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충북대병원 원목실 주일미사

일시 _ 주일.14:00
 장소 _ 충북대병원 본관 지하1층

청주지역 교우들을 위한 주일 밤미사

일시 _ 주일.21:30
 장소 _ 복대동 성당

천송이 천번기도회 / 은사치유피정

기도회 _ 6.15.월.12:30-17:00
 피정 _ 9.5.토까지(16주간).12:00-17:30
 장소 _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_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미사, 안수 있음/중식 무료

제주 산들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올레길 순례
 대상 _ 개인, 각본당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진행
 마라도 _ 7.3-5, 7.10-12, 8.21-23
 한라산 _ 7.17-19/우도 _ 7.24-26
 추자도 _ 9.4-7, 9.11-14, 10.31-11.3,
 11.14-17, 11.26-29
 올레바닷길 _ 9.17-19/억새길 _ 10.14-16
 문의 _ 064-732-4702 면화의 집

충주 오라클 피부과

여드름, 색소, 울폐라, 써마지, 건선, 백반증(엑시머), 일반피부질환

피부과 전문의 윤정현(루카) | 845-6640~1
 충주시 계명대로 28, 6·7층(칠금동)

타볼라 팩토리(청주 3년 연속 블루리본 선정)

타볼라 레스토랑의 냉동 수제 화덕피자 네이버에서 '타볼라팩토리' 검색

안순봉 베드로 | 010-4715-9108

본이비인후과

난청·보청기상담,소아이비인후과,중이염,축농증,알레르기비염 귀코목질환 / 분평동 농협사거리 농협 건너 롯데리아 2층

원장 전문의 이현석 바로로 | 295-7575

제주,전국67곳 43만원 / 일본,베트남,마카오,중국 성지순례

베트남,마카오,북해도,나가사키,아키타,도쿄,오사카 3박4일 123만원
 중국(상해, 북경, 마가자) 3박 4일 125만원 각 지역별 월 1회 출발

마르크 투어 오완수 바로로 | 010-4239-1929

속성새우젓 · 각종 발효액젓 · 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젓갈] 총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카 | 신안탈수햇소금 20kg
 010-7722-7711 | 택배비 포함 4만 3천원

씨엔씨 (CNC) 학원

국가사 단과 (주 1회), 영수 단과 (주 3회)
 내신반 (5대 과목)

원장 김학수 요한 | 010-7435-0828
 상당구 금천동 종교개로 330 5층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피정

추자도 _ 7.1-4, 9.1-4, 9.17-19
 우도 _ 7.18-20, 7.24-27, 7.29-31
 8.1-4, 8.8-10, 8.14-16
 운영 _ 성 이시들 피정의 집
 내용 _ 성 이시들에서 쉽고 제주 여행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접수 _ 02-773-1455, 064-796-4182

교육·모집

말씀여행 특강 '말씀여행과 미사'

일시 _ 6.28, 주일, 14:00-16:00
 장소 _ 증평 성당
 강사 _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
 주관 _ 한국통합사목센터
 준비물 _ 말씀여행교재, 필기구, 성경
 마감 _ 6.20.토까지 ※회비 무료
 문의 _ 838-8141 증평 성당 사무실

봉명동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사무행정, 컴퓨터 활용, 회계업무 가능자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_ 264-335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청주교구 순례자를 위한
목주기도 3천만 단 봉헌운동
 누계 2,482,958단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애덕의 교회사, 이진현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헬레니즘 시대, 주원준 박사
 에밀리 디킨슨: (침묵하는) 신에 대한 언어의 실험, 김민철 신부
 루카와 사도행전, 나자렛에서 로마까지, 김건동 신부
 자크 마리탱의 그리스도교 인간학, 김민 신부
 예수의 윤리: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경로, 박상훈 신부
 현존 영성수련(7주 혹은 8주), 김영근 신부
 접수 _ 02-3276-7733, center.jesuit.kr
 ※각 6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예비신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_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회비 _ 1만원)
 주소 _ 서울 중구 장충단로 4길 14
 문의 _ 02-2274-1843~4, www.cdcc.co.kr

안내·기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고해성사

일시 _ 매주 월, 14:00-15:30(5주 제외)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사회복지기기관장 회의

일시 _ 6.16, 화, 15:00
 장소 _ 교구청

평협 월례회의

일시 _ 6.18, 목, 19: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일시 _ 6.19, 금, 19:00
 장소 _ 교구청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출판·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판매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루도비코형제회

일시 _ 6.20.토, 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 안나형제회

일시 _ 6.20.토, 15:00
 장소 _ 수동 성당

양업회(신학생 부모모임)

일시 _ 6.21, 주일, 11:3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재속프란치스코회 진천보나벤뚜라형제회

일시 _ 6.21, 주일, 13:00
 장소 _ 진천 성당

장애인 그림공모전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대상 _ 청주시 내 등록장애인
 규격 _ 8절 백색용지, 직접 그린 그림
 접수 _ 7.7.화-20.월 ※방문/우편(신청서 필참)
 문의 _ 275-741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배티성지 양업영성관 이용

인원 _ 개인피정 8명
 소그룹모임 16명
 비용 _ 1인 1실 5만원
 2인 1실 8만원(각 1일당)
 문의 _ 533-5710 ※1주일전까지 선착순



6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6.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나투어 성지순례
 7/6 조지아&아르메니아 성지순례 13일
 7/28 캐나다 성지순례 10일
 대표 김홍민 마태오 | **02-732-4578**

더월 속편한 내과
 건강검진, 위 대장내시경, 응급절제술, 지방간,
 만성간염, 역류성식도염, 위염, 과민성장증후군
 고병성 알베르토 | **283-1282**

베트남 성모발현성지 순례
 다낭, 짜끼에우, 호이안, 후에, 라방
 8월 26일(수)-30일(주일), 150만원(청주 출발)
 박경동 마리노
 마샘동행 | **010-9427-1119**

백년 요양병원(대전 만인산)
 '암' 재활 치료
 (항암·방사선 중점관리)
 김지영 라파엘라
 김지묵 레오 | **042-323-1100**
010-8105-3311

153라이프(후불제 장례서비스)
 "하느님 품으로의 귀향" 가톨릭 상례례를 연구·교육하는 전을지대학교
 정례지도학과 교수·장례명장·교육학박사가 신앙 안에서 동행.
 대표 차금식베드로
 전을지대학교 교수/장례명장/교육학박사 | **010-8419-1887**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